

후천운 水雲, 火雲시대를 거쳐 中天運인 木運과 金運으로 完成되는 道脈의 正統性을 河圖洛書 六韜三略의 圖解를 통하여 밝힌다

I. 도맥(道脈)의 정통성(正統性)

동양철학의 정신명문은 약 5천년전 중국 고대의 황제인 복희(伏羲)와 4천2백년 전 우(禹)임금이 그린 것이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왕에 의해 짜여진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근간을 이루고 우리나라 민족 종교의 도맥은 이 하도낙서(河圖洛書)를 근거로 한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도해(圖解)에 의해 정통성이 밝혀지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자생 민족종교라고 하면 그 대표적인 예가 천도교(天道敎)와 증산도(甞山道)를 꼽을 수 있다. 천도교는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의 가르침을 받드는 동경대전(東經大畧)과 가사팔편(歌詞八篇)인 용담유사(龍潭遺詞)가 있으며 최제우 선생의 뒤를 이은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선생의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과 수운심법(水雲心法) 등이 있다.

수운 선생의 성령이 이만제 선생의 몸을 빌려 육도삼략을 그리다

또한 증산도는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의 언행기(言行記)인 대순전경(大巡典經)과 그 수도법(修道法)인 현무경(玄武經)이 경전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삼역대경(三易大經)과 가사사편(歌詞四篇)이 있는데 수운(水雲) 선생의 성령(聖靈)이 이만제(李民濟) 선생의 몸을 빌려 육도삼략(六韜三略)과 삼역대경 영부도(三易大經 靈符圖)를 그리게(降寫)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이만제 선생의 가사부록(歌詞符錄) 등이 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증산도(甞山道)는 다시 태극도(太極道)로 분리되었고 다시 태극도에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로 갈라졌으나 천도교(天道敎)와 증산도를 제외한 태극도나 대순진리회는 '하도낙서 육도삼략(河圖洛書 六韜三略)'에 의한 도맥(道脈)의 운행도(運行圖)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육도삼략도(六韜三略圖)에 의해 우리나라 민족종교의 도맥의 흐름을 살펴보면 2략(二略)의 후천운(後天運)인 3도(三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이 그 운(運)을 타고 나와 '나는 용담(龍潭)이다' 하였고,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을 제창하였으며 이를 동학(東學)이라 하였고, 그 후 31국립운동 당시 33인 중 한 사람인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선생이 동학에 입당하였다가 천도교를 창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후천운의 4도(四韜) 화운(火雲)으로는 증산 강일순 선생이 정음에서 나와 동학을 공부하다가 그 후 흡지교의 시조가 되었고 그가 죽은 후 제자 차경석(車京石), 김형렬(金亨烈) 등이 보천교(普天敎), 태을교(太乙敎)의 이름으로 포교하다가 오늘의 증산도(甞山道)로 발전한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유불선(儒佛仙)을 연구하며 후천개벽사상을 전한 인물이기도 하며, 그는 또한 자기가 화운(火雲)으로 왔다 하며 '나는 삼리화(三難火)로다' 하였다.

지금은 삼략(三略)의 마지막 운(運)인 81궁(宮) 금운시대(金運時代)가 열려 있음

다음은 삼략(三略)의 중천운(中天運)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5도(五韜)인 목운(木運)을 거쳐 6도(六韜)인 금운(金運)에서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 이내 분의 운(運)을 '사상지도(四像之圖)'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운 최제우 선생과 화운 증산 강일순 선생의 후천운(後天運)도 이미 지나갔고 중천운인 목운의 시대도 지나간 지

금은 3략의 마지막 운(運)인 81궁 금운시대가 열려 있는 것이다. 금운시대가 열림으로 육도삼략은 완성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삼역대경(三易大經) 팔괘구궁십삼장(八卦九宮十勝章)에 "水雲之時난 54宮之運氣也 火雲之道난 63宮之運德也 乃成木運之道하고 72宮運德也 81宮之極運也라" 하였다.

그러므로 (대순전경) 법언(法言)에 "천존(天尊)과 지존(地尊)보다 인존(人尊)이 높으니 이제는 인존시대다" 하였으니, 천존시대는 선천운이요, 후천시대는 후천운이요, 인존시대는 중천운으로 81궁의 금운이 육도삼략의 완성(完成)이란 뜻이다. 이같은 사실을 미루어보아 강증산 선생 자신도 자기의 운이 다하면 인존시대(人尊時代)의 중천운(中天運) 시대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운(木運) 박태선 장로님은 12월 26일에 탄강하셨다.

다음은 6도 금운(81宮之極運)의 정체를 밝힌다.

삼역대경 서문에 금운으로 오실 분을 예언하기를 "以西方之金으로 成于東方之木하야 金木이 合運에 地上仙國이 能開人中之天이라"고 하였다. 즉, 西方之金運(서방지금운)은 東方之木運(동방지목운)으로부터 시작하여 金運(금운)이 完成(완성)되니 그러므로 金木(금목)이 合運(합운)이요 地上仙國(지상선국)을 능히 開天(개천)하실 人之中天運(인지중천운)으로 오시는 분이 다하는 뜻이다.

또한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의 운(運)이 목운(木運)에서 금운(金運)으로 완성되는 시기를 증산도(甞山道) 도전(傳典)에는 "내가 이제 七十二運을 써서 火運을 트리니

그런데 이같은 도맥(道脈)의 정통성을 대순전경(大巡典經) (開關(개벽)과 仙境(선경)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때는 天地成功時代다 西神이 司命하야 萬有를 宰判하야 聚理를 集而大成하나니 이른바 開關이라" 즉, 천지공사(天地公事)가 완성(完成)되어 성공(成功)을 거두는 시대는 바로 서신(西神)이 사명(司命)하는 시기다 하였는데 서신(西神)은 금운(金運)을 뜻한다. 그러므로 금운시대(金運時代)는 만유(萬有)를 지배하며 못이치를 크게 모아 완성(完成)하나니 이른바 개벽(開闢)이라 하였으니 즉 금운(金運) 시대에 개벽(開闢)이 완성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생추수(人生秋收)의 사명(使命)을 받고 오시는 금운은 중천운의 주인공

한편 이서구(李書九) 선생은 육도삼략

熙星)남께서는 경신년(庚申年)인 1980년에 도(道)의 완성자(完成者)가 되시고 신유년(辛酉年)인 1981년에 승리제단(勝利祭壇)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시작하셨으니 "申酉金風(신유금풍)"은 이를 말한 것으로 경신(庚申)과 신유(辛酉)가 지지(地支)로 "申酉"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신(庚申)과 신유(辛酉)에 시작된 금운(金運)의 역사는 만물이 결실하는 역사요 초복(初伏), 중복(中伏)도 다 지나고 말복(末伏)의 운(運), 즉 마지막 운(運)이라는 뜻이다.

김일부(金一夫) 선생이 말한 상제님은 중천운(中天運)을 타고 오신 금운(金運)

"人尊時代(인존시대) 되었으니 周易(주역)이 正易(정역)된다" 하였는데 정역(正易)을 완성한 김일부(金一夫) 선생은 "河圖

후 토(土)가 되는 대지에 불(火)도 있고 물(水)도 나무(木)도 있고 쇠(金)도 포함되어 있기에, 토운(土運)은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화운, 수운, 목운, 금운 모두 토운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금운(金運)은 육극지천(六極之天)인 동시에 칠극지천(七極之天)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삼천태극일부도(三天天極一符圖)이다.-(그림 참조) 삼역대경(三易大經)에 "天之無極과 地之太極과 人之皇極"이라고 하였으니 천지무극(天地無極)은 선천운(先天運)이요 지천태극(地之太極)은 후천운(後天運)이요 인지황극(人之皇極)은 중천운(中天運)을 뜻한다. 그러므로 중천운(中天運)은 황극(皇極)의 운(運)을 겸하고 있다는 데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하락합부(河洛合符)의 삼생가(三生歌)에도 "中央皇極仙道法은 中庸之德中天運이라"하여 중앙(中央)에 위치한 황극(皇極)이 선도(仙道)의 법(法)이요 선도(仙道)의 황극(黃極)이 중천운(中天運)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동양사상에서는 "天地人"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즉 순서로 불 때는 先天(天), 後天(地), 中天(人)이 되는 것이다.

※ 이하 지면 관계로 한글 옆에 괄호로 한자 병기(併記)를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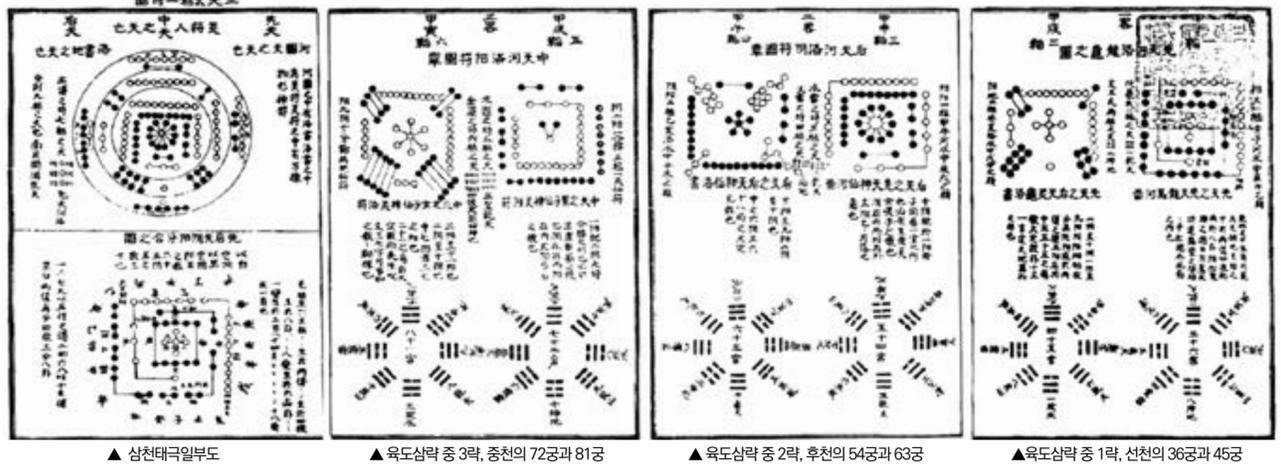
그러나 이를 圓의 圖表로 설명할 때는 中天運의 仙道 자리가 가운데 위치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설명한 것이 三天天極一符圖이다. 즉, 先天 河圖는 圓의 순서에 의해 바깥으로 첫째요, 後天 洛書는 안으로 두 번째요, 中天 靈符人은 中央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黃極은 中天運이라 하였으니 皇極의 자리 역시 中央인 것이다.

금운(金運)은 육극지천(六極之天)인 동시에 칠극지천(七極之天)을 겸한다

그런데 中은 또한 土의 위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中央戊己五土"라고 한 것이다. 즉, 方位로는 中央이요 天干으로는 戊己요 易數로는 五이요 五行으로는 土라는 뜻이다. 그런데 中央戊己五土는 皇極이 五요 無極이 十의 易數를 지니고 한 자리에 있으니 五이요 그 자리가 中央戊己五土, 土의 자리이기도 하니 皇極(運)인 강증산(甞甞山) 선생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후분도수(後分度數)의 중천운(中天運)을 타고 오신 금운(金運)이다.

하락요람(河洛要覽)의 정감록(正鑑錄)에는 "眞人天命歸來益幸福 水火運退去日時 若待後人木金運 無極八卦未申宮"이라고 하였으니 즉 화운(火雲)이 퇴거(退去)하면 남이면 날마다 고대하던 후인(後人)은 무이경지에 이르자 하나님으로부터 (이긴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비로소 무극대도를 펼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무극팔괘(無極八卦)는 지천태극의 정역 시대를 여는 중천운의 주인공을 암시한 것이며 미신궁(未申宮)은 신미생(辛未生)과 경신년(庚申年) 도통을 이룬 81궁(宮) 금운 정도령(程度令) 진인(眞人)을 가리킨다.

三天天極一符圖의 가운데 中天運의 卦象은 白一에다 黑十의 圓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十은 하나님, 一은 一六水, 또는 天一生水라 하여 甘露水를 상징하여 土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中天運의 주인공은 甘露水를 내리는 주인공이다 하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다.*



육도삼략(六度三略)은 하도낙서(河圖洛書)의 선천운(先天運)인 복희씨(伏羲氏), 문왕씨(文王氏)를 거쳐 그 운(運)이 대륙동방 해우반도로 옮겨와 후천운(後天運)인 수운(水雲) 최제우, 화운(火雲) 강증산으로 왔고, 이것이 '마지막' 중천운(中天運)인 목운(木運) 박태선님을 통해 금운(金運) 熙熙星(조희성)님으로 완성되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의 도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실을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후천운으로 나온 천도교와 그 뒤를 이은 증산도에서는 육도삼략의 운행도에 의한 도맥의 흐름이 분명하게 그들의 경전에 밝혀져 있는데도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육도삼략의 운거운래(運去運來)하는 도맥의 정통성에 따라 3략(三略)으로 완성되는 5도(五韜) 목운(木運)과 6도(六韜) 금운(金運)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보기를 한다.

지상선국을 여는 중천운(中天運)의 사람

중천운을 여는 첫 5도 목운은 격암유록 말운론(末運論)과 길지(吉地歌)에 예언되어 있는 신앙촌을 건설하신 분이요 도하지(道下止)에 예언되어 있는 진도관(傳道館)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그 주인공은 도부신인편(敎符神人篇)에 예언되어 있는 박태선 장로이다.

또한 도해(圖解) 삼역대경(三易大經)에는 "天八卦 十三木運"이라 하였는데 대순전경(大巡典經) <化天화천>에는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였으니 이는 "天八卦 十三木運 (천팔괘 십삼목운)"을 뜻하는 것으로 목운(木運)은 괘상(卦象)이 사방 팔방 대각선으로 13수에 해당되고 그러므로 화운(火雲) 강증산 선생의 뒤를 이을 운(運)은 열석자의 몸으로 오는 목운(木運)이라고 증산 선생이 친히 밝혔던 것이다. 실제로 증산도 도전 5편 354장에 "십이월이십육일 재생신강일순(十二月二十六日 再生身姜一淳)"이라는 예언 그대로 목

나는 곳 三離火로다" 하였으니 강증산 선생은 화운(火雲)으로 왔고 72에 숨겼다가 화운(火雲)의 앞길을 트겠다는 뜻이다. 강증산(姜甞山) 선생은 전북 정읍(井邑)에서 1871년에 태어나 1909년에 화천(化天)하였고 화천한지 72년째 되는 해가 1981년 신유년(辛酉年)이다. 또한 칠십이운(七十二運)의 72를 영부(靈符)의 궁(宮)으로 보면 72궁이니 열석자의 몸인 목운(木運)에 해당되기도 한다. 그래서 목운 박태선 장로님은 바통을 이어받는 후계자 금운 조희성 미륵부처님을 위해서 <열석자의 몸-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의 제단 형태와 13자의 제단 명칭을 주도하신 것이다.

즉, 강증산(姜甞山) 선생의 화운(火雲)의 운(運)은 72궁(宮) 목운(木運)으로 이어졌다가 화천(化天)한지 72년 후에 해당되는 1981년 신유년(辛酉年)으로 다시 이어진다는 뜻이었던 것이다. 즉 1981년은 금운(金運)의 역사가 시작되는 해였던 것이다.

그런데 금운으로 오신 신미생(1931년생) 조희성(曹熙星)남께서는 1980년 경신(庚申)년에 도(道)의 완성자(完成者)가 되시고 신유년(辛酉年)인 1981년에 승리제단(勝利祭壇)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시작하셨으니 강증산 선생의 예언은 이같이 적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후천운(後天運)인 수운(水雲), 화운(火雲)시대를 거쳐 중천운(中天運)인 목운(木運)과 금운(金運)으로 완성되는 도맥(道脈)의 정통성을 하도낙서(河圖洛書)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도해(圖解)를 통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의 운행도에 따라 그 시대마다 천운(天運)을 받고 나타날 주인공의 정체(正體)를 세상 농사 짓는 사계절(四季節)을 비유하여 채지가(採芝歌)의 <七月食瓜(칠월식과)>에 설명하기를, "木神司命 하을적에 근본 本字 木 春字"이었으니 木神(목신)은 木運(목운)을 상징하고 木運(목운)은 봄(春) 계절의 운(운)에 해당된다는 뜻이요, "火神司命(화신사명),은 여름 夏字(하), 火神(화신)은 火雲(화운)을 상징하고 여름의 운(운)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先天運數 돌아가고 後天運數 돌아오네 人尊時代 되었으니 周易이 正易된다. 地天兌卦 되었으니 金神司命 하을적에 가을을 노래하니 秋分度數 되었구나 申酉金風 찬바람에 萬物成熟 되었구나 初伏 中伏 다 지나고 未伏運이 이때로다"

춘산채지가(春山採芝歌)의 '칠월식과(七月食瓜)' 가사에서 선천운수(先天運數)는 1략(一略)의 운(運)이요 후천운수(後天運數)는 2략(二略)의 운(運)이요 인존시대(人尊時代)는 3략(三略)의 중천운(中天運)이니 선천(先天), 후천운(後天運)을 거쳐 지천태극(地天兌卦)의 중천운시대(中天運時代)가 돌아오면 주역(周易)이 정역(正易)된다는 뜻이다. 또한 금신(金神)은 금운(金運)을 뜻하니 금운(金運)이 다스리는 시대는 가을을 노래하는 후분도수(後分度數)라는 뜻이다. "申酉金風(신유금풍) 찬바람에 萬物(만물)이 成熟(성숙)되었구나" 하는 뜻은 앞에서 "내가 이제 七十二運(칠십이운)을 써서 火運(화운)을 트리니"에서 설명한 바 있듯이 금운(金運)으로 오신 조희성(曹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영천제단 : (054)333-7121	대전제단 : (042)522-1560	橫濱祭壇 : (045)489-9343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사천제단 : (055)855-4270	청주제단 : 010-5484-0447	神戶祭壇 : (078)862-9522
안성제단 : (031) 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순천제단 : (010)3661-9025	충주제단 : 010-9980-5805	下關祭壇 : (0832)32-1988
부산제단 : (051)863-6307	진주제단 : (055)745-9228	정읍제단 : 010-8628-2758	양평제단 : 010-2945-8254	大阪祭壇 : (06)6451-3914
ये도제단 : 010-6692-7582	진해제단 : (055)544-7464	군산제단 : (063)461-3491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